



한울타리

‘Ruth: The Musical’ 뒷이야기

이예승 집사 (Naomi역)



불이 꺼졌다. 드디어 시작인가. 내 손엔 아직 대본이 쥐어져있다. 정말 시작하는건가. 조금 전 오후3시 드레스 리허설을 할 당시에 정말 오늘 저녁에 이 어설플 극이 무대에 올려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정말 이대로 극이 오르는 것인가. 아직도 무대의상을 기다리고 있고, 핑크난 무대 메이크업으로 인해 배우들 각자가 분칠을 하고 있다. 긴장감으로 기도를 하는건지 눈을 감고 있는 배우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Little girl역의 나연이는 이 좁은 백 스테이지에서 본인의 발레 솔로 터닝을 연습하고있다. 오늘 급조된 마지막 컴퍼니송 댄스는 아예 머리에 들어있지도 않다. 이대로 Ruth를 정말 무대에 올릴 수 있는걸까. 도대체 뭘 믿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한, 준비되지 않은 뮤지컬을 강행한단 말인지, 아직도 난 그 용기가 믿기지 않는다. 허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일한 백,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신 저 위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드디어 어둠속을 뚫고 조명이 켜진다. 그 속에서 속사포처럼 대사를 외워나가던 Obed의 대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람? 연기량은 전혀 안 친한줄 알았던 Obed(John Lee) 이 녀석이 연기를 하고있다. 뭐지? 지금까지는 다 내숭이었던 말인가? 이 무슨 대박조짐이람? Old Naomi (김경애권사)의 대사도 또박또박 잘 들리고, 2장의 Ruth, Orpha, Naomi의 삼중창도 연습때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끝이었다. “Turn around my daughters” 라 외치며 매물차게 머느리들을 떠나보내려는 Naomi와 “Do not press me to leave” 라 말하며 눈물 흘리는 Ruth(이미혜), 그리고 “Why must I leave?” 라고 외치며 돌아서 떠나는 Orpha(안희주)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관중도 있었으니 정말 초창부터 여기저기 대박조짐이 보인다.

청중들의 한껏 고조된 슬픔의 여세를 몰아 3장 Naomi의 처절한 한맺힌 노래 “Call me Mara” (이혜원 연출과 조나현 음악감독이 심혈을 기울인 Money Song)가 피아노 선율에 몸을 싣는다. 노래가 끝난후 유일하게 박수가 없었던 곡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중들이 얼마나 Naomi의 한과 슬픔에 몰입되어 함께 그 슬픔을 나누었는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끝이 어 이어지는 김지수사모님 (Woman of Bethlehem 1)의 자연스런 연기가 돋보였던 “Safe under His Wing”. 리허설때마다 긴장감에 약한 모습 보이시던 우리 이모님.. (pg 5에 계속)

12월호 목차

- ▶ “Ruth the Musical” 뒷이야기
- ▶ 권두언
- ▶ 당회보고
- ▶ 예배예술위원회의
- ▶ 홍보위원회의
- ▶ 영의평화환경위원회의
- ▶ 국내선교위원회의
- ▶ 베드로 소그룹 성경공부반
- ▶ 안드레 소그룹 성경공부반
- ▶ 장로 임직 감사
- ▶ 안수집사 감사
- ▶ 남선교회
- ▶ 집사회
- ▶ 여선교회
- ▶ Ransom 중고등부
- ▶ Sunflower 주일학교
- ▶ 웨마의 밤
- ▶ 수필 민들레
- ▶ 대강절의 의미
- ▶ 광고/교우동맹/행사알림
- ▶ 새교우 환영반
- ▶ KCB 갤러리



감사하는 마음

이영길 담임 목사

저의 집 뒷마당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 틈을 비집고 여러 가지 꽃들이 자랍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 잡초라는 꽃들이죠. 그 중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노란 잡초꽃도 자랍니다. 소위 말해서 민들레입니다. 어느 잡초꽃 보다도 더 예쁘게 자랍니다. 예쁜 꽃모양에 비해서 민들레들은 너무도 비좁고 험한 곳에서도 잘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잔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몹시도 미운 꽃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의 꽃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누가 이런 꽃말을 붙였는지 몰라도 너무도 멋진, 그리고 잘 지은 꽃말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어디서나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는 생각에서 붙여진 꽃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봄이 그리워지네요. 그러나 감사하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의 봄이 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찾아 오시는 감사하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당회 소식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

- 1. 교육 2부 위원장에 김 영범 장로를, 홍보 위원장에 박 신영 장로를 임명함.
- 2. 박 천석 전도사의 목사안수과정의 하나인 본교회에서의 under care 를 허락함.

- 3. 이 영길 목사의 휴가 (10/24-11/10)를 허락함
- 4. 윤 경문 목사의 연구휴가 (11/21-26) 를 허락함.

예배예술위원회

장로 임직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



9월 18일에는 신임 장로 임직과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이 임직되는 제직들은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중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평을 위해

서 일하시기로 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진작시키고 스스로의 정성과 지성, 창의력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섬기기로 서약했습니다. 또한 충성된 장로로서, 권사로서, 혹은 집사로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친구없이 외롭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도와주고, 나아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힘쓰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행할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신임장로: 김영범, 박신영 장로

신임권사: 이상자 권사

신임안수집사: 강혜정, 방경남, 서명숙, 신소정, 이경자, 이주용, 유승오, 한정인, 황동준 집사(9명)

홍보위원회

박신영 강로

홍보위원회는 교회 내의 여러 부서와 기관들의 활동을 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교인들이 적극적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의 여러 활동에 필요한 시청각 시설과 information technology를 지원하며,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한인들, 그리고 옛 교우들과 잠재적 교우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배우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가 가진 정보와 자료와 은혜를 나누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4개 팀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 홍보 위원회가 도서실 운영을 담당하게 되어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교회내 여러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coordination 하고 지원하기 위해 홍보 지원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도전을 서로 나누는 '소통'을 통해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홍보 위원회에 연락을 주십시오. 현재 각 팀의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판 - 한울타리, 사순절 묵상집, 필그림 발간 (김한나, 배한원, 임현, 윤경문 목사).
2. 멀티미디어 팀 - 교회 행사때 사진 및 비디오 영상을 제작하여 웹사이트에 올리고 영상기록물을 제작 보관하며, 교회내 홍보 게시판과 기타 홍보물 관리운영 (김상기, 유승오).
3. IT (information technology) 팀 - 교회의 웹사이트, computer network, A/V system등을 설치 관리. 특히, 교회 웹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안성완, 정재원, 이봉욱, 하대준, 방경남, 안태준[고문], 김정선[고문]).
4. 대외 협력팀 - 교회 및 모든 교회 행사의 대외 홍보를 책임 (백승한, 윤경문 목사,)

*** 그동안 출판부서에서 computer designer로 수고해 주셨던 김양희 교우님 가정이 San Jose, CA. 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김정선 강로

지난 10월 광고시간에 간단히 새로운 이름을 가진 Justice, Peace & Environment Committee (정의 평화환경 위원회, 짧게는 정.평.환, 구 사회정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거한 명칭이어서 조금 부끄럽기는 하나, 우리도 이웃을 위해, 후손을 위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기위해서 확실한 이름을 택하였습니다. 우리교회의 비전선언문 4개 가운데 하나는 세계를 향한 교회, 또 하나는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 이민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PC(USA)에서도 여러가지 세계를 향한, 억눌리고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한 사역을 Compassion, Peace and Justice Ministries의 이름으로 꾸준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역 중에 하나인 Environmental Ministry 분야를 저희는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 이름에도 명시하고, 이와 연관된 PC(USA)의 사업인 Earth Care Congregation (ECC)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GreenKCB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위의 소소한 환경보호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소극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속한 지역사회, Brookline 에서도 지난 2년



간 Climate Change Action Brookline (CCAB) 라는 Green Community환경보호 운동을 타운의 여러 기관과 학교, 단체들과 같이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1:20 부터 2시간에 걸쳐 저희 정평환에서는 Brookline의Climate Change Action Brookline (CCAB)와 공동 주최로 Eco-Seminar 및 Earth Care Congregation 홍보 workshop을 본교회 Children's Chapel에서 가졌습니다. 청년 1, 2부, 부부청년부 및 각기관 대표자들 50여명이 참석, Brookline에서 초대된 두분 강사 (Susan Martin & Paul Harris, Co-Chairs) 님의 현재 타운에서 진행중인 환경보호 운동에 대해서

“Brookline Climate’s Pioneer” video와 함께 강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rookline에서는 매달 Smart Energy Living을 위해서 환경운동 한가지씩을 계몽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10월은 전기 아껴쓰기, 11월은 친환경 세탁, 12월은 난방비 절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CCAB web site <http://www.climatechangeactionbrookline.org/> 를 참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Earth Care Congregation (ECC) project는 지난 당회에서 정식으로 ECC Pledge 를 택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ECC Guideline에 따라 온 교회가 예배, 교육, 시설, 홍보 (Worship, Education, Facilities, and Outreach) 네 분야에서 관계되는 Activity를 함으로써, 소정의 점수를 따면, 정식으로 ECC 교회로 PC(USA)에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와 교육 사역에 관계된 Activity로는, 예배는 5점, 야외예배도 5점, youth project 4점, earth care web site 4점 (이미 완료), earth care fairs or events 12점등입니다. 시설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주로 해오던 것으로 예를 들면 CFL/LED 전구쓰기, 다양한 recycle, 교회 출판물을 email로, 부엌 쓰레기 줄이기, 컵 접시 재사용 재질 사용, 몸에 안좋은 부엌 세제 안쓰기, 잔디에 화학 비료 또는 살충제 덜쓰기 (사용 비율에따라 0 부터 5점 또는10점 사이) 등입니다. 네번째 Outreach에서는 교회내 ECC 홍보활동 2점, 교회 밖 기관과 협조 활동

5점, 지역사회, 전국적으로 earth care에 관계된 사역 홍보활동 4점, Earth Care Conference 참석 5점 등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 정평환에서 해오던 일과, Eco-Seminar에 관한 자료를 한 곳에 blog 형식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Web Site 이름은<http://jpeckcb.wordpress.com/> 입니다. (Smartphone으로 scan 하시면, 곧바로 web site가 나타 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자료를 돌아 보시고, 과연 나 자신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세계 각곳의 말 못하고 억눌린 자들,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co-Seminar는 취지에 맞추어 모든 presentation을 projector로 진행,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였고, 그대신 모든 참석자에게 presentation handout를 email로 보내 드렸습니다. 점심 또한 특별히 Eco-lunch를 준비, no paper plate, no styrofoam cup, no bottled water로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Eco-Seminar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이 운동에 volunteer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CC 홍보 활동을 위해 조만간 모든 교인분들께 email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선교위원회

이번 가을에는 어느때보다 활발한 국내선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커뮤니티 Outreach 를 위한 음악행사인 Oasis Cafe Music Night이 9월에 ECC Community Center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Berklee 음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Aires de Argentina 그룹이 탱고 음악을 비롯한 멋진 라틴풍의 음악을 들려주어, 참석한 다양한 배경의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0월 22일에는 한국 교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집사회와 함께 ‘한국 가요의 밤’ 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리며, 70-80시대의 모습을 담은 영상쇼와 더불어, 우리교회의 임현실(오설리), 강모영, 황동준, 이미혜 교우와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셨던 박천우, 김광민씨의 멋진 노래들로 한껏 옛 추억에 젖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11월 5일에는 우리교회 교우님들이 대거 출연하신 “룻:뮤지컬(Ruth:The Musical)” 의 막이 올랐습니다. 성경

룻기의 이야기를 토대로 아름다운 음악(작곡:조나현, 작사:이웅순)으로 꾸며진 뮤지컬 룻에서는 우리 교우님들의 프로급 연기와 멋진 노래들로 발돋움음을 틀이 없이 짙찬 ECC Chapel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앵콜 공연의 요청이 쏟아지자 뮤지컬 팀은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룻: 뮤지컬” 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17일에는 Brookline의 연중행사인 1st Light Festival에 Oasis Cafe Music Night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라틴음악 밴드인 Racha For a 그룹이 멋진 플루트와 바이올린, 기타로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신나는 음악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이 행사를 끝으로 올해 국내선교위원회 outreach program을 마무리하였고, 내년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국내선교위원회에서 마련한 Outreach program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g 1에서 계속)

극이 시작된 지금, 타고난 무대체질을 십분 발휘하시어 함께 손을 잡고 연기하고있는 나 Naomi마저 한껏 필만 아 더 극에 몰입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신다. 4장 Ruth의 독백 (“Happily Carefree”)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를 느끼게 해주며 대박 Ruth의 고공행진에 힘을 신는다 (미혜를 Broadway로~).

Ruth의 히트 장면인 제 5 장. Man of Bethlehem 1 (순정신)의 첫 대사부터 관중들의 웃음이 빵터져 5장이 이어지는 한 10분여간 끊이지않는 관중들의 웃음이 점점더 극에 힘을 신는다. 전도사의 직분이 믿기지 않는 문지용군(Foreman)의 손발이 오그라드는 능글연기와 Man of Bethlehem 1-2-3 몸치분들의 처절한 댄스경연 (안보신 분들께서는 꼭 동영상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이 모든 것도 저 위에 계신 그분의 철저한 계산에 의한거라 생각하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온다. Lord, you’re the Best! Ruth와 Boaz(백승한)의 서로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듀엣이 조금 전 한편의 코메디를 감상하던 관중들의 맘을 금새 애잔하게 한다.

정말 이 사람들 연기며 노래며 프로들처럼 하고있다. Boaz 여성팬 좀 생기겠다. 노래 도중 등장하는Man of Bethlehem 2 (장민국)의 1초의 애교가 피땀흘리며 열심히 고심한 끝에 건져진 결과물임을 알기에 극에 대한, 아니 배우들에 대한 기대심이 더 더욱 높아지며 극에 더 몰입하고 있다. 7장 Naomi가 보여준 신세대 시어머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웃음을 날리는 사이 Ruth와 Boaz의 또 하나의 명곡 “Spread Your Cloak over Me”가 ECC진물 전체를 사랑의 힘으로 휘감는듯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

끝이어 이어지는 Ruth의 하이라이트, Boaz가 Ruth의 Kinsman-Redeemer가 되는 기쁨 가득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Elder1,2(김문소/한승희장로)의 솔로로 시작되



는 “Elder’s/ blessing”이 관중들 한사람 한사람을 축복하고 있다. 아.. 이 뻗속까지 축복되는 느낌.. 좋다. 마지막 company song 함께 하는 댄스도 관중석 맨끝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있는 조나현 음악감독을 따라하며 별달 없이 끝났다. 극이 정말 끝이 났다.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지난 수개월간 준비했던 Ruth가 막을 내렸다.

돌아보니 그렇다. 우리들이 미리 알았어야했다. Ruth는 저 위에 계신 분의 처절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란걸. 변변한 악보없이 한번 들으면 반주가 따라나와 매번 탄성을 지르게 하던 장인지 (piano)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도, 공연날짜 3주를 남기고 준비된 배우 백승한 집사를 Boaz로 casting하게 하셨을 때도,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온 acting coach (Lauren Foster)와 choreographer (Margot Parsons)를 만났을 때도, 공연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대본을 배우들이 불평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냈을 때도, 공연 3일전 극적으로 만나 그 자리에서casting된 little girl 나연이가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도, 여기저기 구멍나 있던 Staff를 공연 당일날까지 곳곳에 부족함없이 채워주셨을 때도, 공연 당일 리허설때도 다 완성되지 않았던 무대의상들이 “Sun의상실” (김선영 장로, 최송자 권사, 강영숙 권사, 김한나 집사)의 빠른 손놀림으로 3시간여만에 완성이 되었을 때도, 핑크난 무대 메이크업을 메꾸느라 한정인 집사님 (Mother)의 메이크업가방이 닫힐 시간 없이 열려 있었을 때도, (우리 한집사님은 배우들 눈썹만 죽히 열개쯤은 그리신듯 하다). 이 모든 시간에 그분이 함께 계셨고 우리가 감사해야할 일들만 있었다는걸 우린 좀 미리 알았었어야했다.

‘Ruth:the Musical’에는 우리들의 다양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작아진 믿음에 좌절했다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여인 Naomi, 변함없는 순종으로 구세주의 조상 Obed를 낳는 축복을 얻은 Ruth, 구세주의 사랑을 연상케하며 약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영광의 삶을 얻은 Boaz, 그리고 그들을 주변에서 늘 도와주고 축복하는 Men & Women of Bethlehem 과 Elders...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가르침을 선물하시고, 또 가까운 이웃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충고를 하고 계시는듯하다.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부분 추측조차도 할 수 없는) 그분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졌으리라 믿는다.

이제 한동안 이해원 연출의 “Louder!”라고 소리침이 메아리처럼 들릴 것이고, 조나현 음악감독의 “여기 노

래하시기 괜찮으세요?” 가 컷가에 맴돌 것이다. 그리고, 준비기간 내내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하셨던 사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순간들이 이어질 것이다. 공연뒤에 오는 허무함보다 뿌듯함과 감사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건 비단 필자만이 아닐것이다. 아울러 언젠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막연

히 다음번 공연이 기대된다. 역시 이것도 그 분의 계획 하심인듯.
더 다듬어지고 믿음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올 다음 공연도 주님 당신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
Indeed! We are the Ruth team.

소그룹 성경공부 반

헛되고 헛되다

베드로반 권 복태집사

가을이 온듯 하더니, 어느새 겨울의 문턱입니다. 일요일 오후, 잔디밭을 뒤덮은 낙엽을 굽으며, 베드로 성경공부반과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공부한 솔로몬의 전도서를 떠올렸는데, 인생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씩 자면서 꿈을 꾸곤 합니다. 원하던 것이 모두 이루어 지는 좋은 꿈, 또 밤새 가위에 눌려 쫓겨 다니다 고통 속에서 깨어나는꿈.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밤새 꾸는 꿈과 하나도 다를바 없는, 깨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물거품과 같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사람들의 지혜가 헛되며 인간의 의로움도, 그들이 가진 재능이나 존귀, 권력, 쾌락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젊음과 생명까지도 저 흠어지는 낙엽처럼 헛되다는 허무론적인 것같던 전도서는 마지막 장에 들어 오며 극적인 전환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며, 모든 것” 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사막의 자갈길같은 황량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못견디게 하고, 이루고자 했던 꿈이 좌절되거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소원하여 힘들 때가 있고,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회의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

보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안아 일으키시고 밀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러한 사랑을 잊어 버립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솥한 은혜를 잊어 버리고 불순종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군가 인생을 신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비입니다. 시간을 선물로 받아 들이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날의 첫날” 처럼 귀중히 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고 말했는데, 이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성경 공부 반은 찬송가 489장을 즐겨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제 대강절 기간동안, 아니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며,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귀영화의 최고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며 전도서를 썼습니다. 이 책을 지난 세 달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매 주 모여서 ‘헛되도다’ 라는 탄식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켜 보았습니다. 혹 우리도 모르게 절대화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는 없었는지, 인생에서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

특별히 이번 성경공부에서는 보통 잘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살아가는 재미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혜의 한계, 죽음의 문제, 하나님에 정하신 시간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물질적인 욕심, 정욕과 사람의 욕망에 대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역등등. 또한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은 성하고, 의는 세워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봉사하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모든 면에서 착하고 훌륭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함께 말씀공부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 가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배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커피 한잔을 들고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느끼는 부요함을 나누는 분, 집 마당의 잔디를 가꾸며 오가는 이웃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말없이 언제나 봉사하시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자주 눈물을 흘리시는 분, 말을 못하신다며 잘 안하시지만 한번 말씀하시면 요점과 결론을 내시는 분, 그런가 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신다며 초지일관 침묵하며 주로 듣기만하시는 분, 성경공부가 재미있었다며 늘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오시는 분, 외로운 분들을 찾아 식사 대접하고 선물하는 삶의 재미를 가지신 분,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지체들을 위해 늘 성경봉독을 해 주시는 분, 멀리 펜실바니아에서 손주를 돌보시기 위해 보스턴을 방문하실 때마다 모임에 오셔서 삶의 간증을 나누어 주시는 내외분, 그리고 가끔씩 손님처럼 찾아오셔서 반가운 분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주님을 함께 배웠습니다.

소그룹 성경공부는 성경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한 교인들의 삶과 생각이 모두 어우러져 풍성한 은혜의 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도서 성경공부를 통해 우리는 세상적 가치의 일시성과 제한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같은 참된 절대적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비록 잠시 세상이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 부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임을 다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임도 잊지말라고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그 동안 소그룹 성경공부를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들, 교육 3부 위원회 임원들, 특별히 이 모임의 기쁨을 다지신 고강길원 장로님, 그리고 모든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 임직예배 답사

박신영 장로

중학교 시절 공부는 멀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즐기다가, 어느 부흥회에 참석해서 부끄럽게 사는 저의 모습과 이런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고, 이렇게 거듭나는 체험을하고 나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신 부모님은 고아원을 운영하시느라 늘 바쁘셨지만, 저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늘 기도하시며 신앙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회의 영적 자양분을 먹고 컸습니다.

대학 1학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말씀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두달 동안 밤낮으로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지냈고, 그리고 과 친구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해에 과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미생물학과 크리스찬 모임을 조직하고, 그리고 대학 캠퍼스복음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을 키우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새싹교회 고 신사훈 목사님, 대학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내외를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김준식 목사님 내외, 캠퍼스 복음화 운동을 위해 함께 헌신했던 박홍수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 보스톤에 와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식구들. 또한 보스톤 한인교회에서도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제 마음에 떠 올리면서, 고 강길원장로님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의진이와 지인이를 함께 키우며 사는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의 빛을 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 장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저는 십자가에서 길을 찾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과,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에 빛진 자로서 제 십자가를 지고, 교인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범 장로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성경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다녔다가 보다 교회를 가야 용돈을 받고 맛있는 점심도 먹을 수 있었기때문에 100%의 출석률을 기록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영락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까운 오장동 “냉면집”을 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면 주일학교 숙제인 성경암송을 하기보다는 내일 먹을 냉면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찬송가보다는 이장희와 세시봉의 노래를 더 좋아했던 음악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막내 삼촌을 줄라 당시 최고의 음악 카페였던 “셀부르의 우산”을 몰래 들어가 본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대 심방을 오시는 날이면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가족과 함께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태산을 넘어 힘곡에 가도 빛 가운 데로 걸어가면”으로 시작되는 찬송가 502장을 열심히 부르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502장은 우리 가정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일요일에는 항상 사역에서 열외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예배당 구석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지만 성가대 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민혜와 태벤이를 보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난 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저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와 이웃들의 기도, 이러한 기도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도구로 저를 사용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간증하는 자로 그리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진솔한 종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로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장님 이하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집사 답사

한명인 집사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제가 안수집사에 추천되어 2월 부터 6개월간의 교육은 많은 것을 배우며 새로운 것들을 배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6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따라만 다니던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제가 찬양대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일원이 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솔리스트도 아니고 반주자도 아니고 지휘자는 더욱더 아닌... 그러나 찬양대의 리더를 잘 따르는 중요한 follower입니다. (따르는 자 라는 뜻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따르는 자가 없으면 리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육중에 목사님의 말씀과 선배 집사님들의 나눔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해주었는지 여러분들도 꼭 한번씩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저보다 남편이 교회일에 더 앞장서는 분이 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남편은 저보다 더욱더 앞서 감사와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나는 분마다 찬양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한 것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수집사 모임에서 교육을 다 마쳐갈 즈음 임직식때 인사말을 할 대표 한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품은 벅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었죠. 그러나 저보다 훌륭하신 신앙의 선배 집사님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차례가 오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추천하면 못이기는 척하고 하려했는데 엄선 끝에 어느 집사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 집사님이 사정상 못 하시겠다고하여 또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또! 대신 맡으신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제게 전화를 하셔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들어 드리는 것 같이 되었지만 그건 주님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서서 자원하는 용기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키면 열심히 협조하고 돕는 Follow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합니다. 이제부터는 훌륭한 리더가 아닌 '훌륭한 따르는자' 로 안수집사가 될 것을 다 집합니다.

남선교회

방명남 집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속에서 감사한 2011년이었습니다. 2009년 보스톤한인교회에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친목과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공동체로 시작된 이후, 점차 그 활동의 범위를 넓히며 자리 매김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가을의 행사 내용은 10월 8일 토요일에 Acushnet C.C.에서 남선교회 추계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총 25명의 남선교회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챔피언에 오성원 집사가 차지하였으며, 지난 춘계골프 대회에 이어 이번 추계대회에도 남선교회 체육부장인 이경환 집사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며, 함께 참가하지는 못하셨지만, 후원하여 주신분 (김문소, 이정규, 김성현 장로와 권복태, 이창호 집사)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모은 수익금은 전액 보스톤 한국학교에 지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일부는 우리의 동포인 북한선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에는 남선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을 마감하며, 지난 해를 바탕으로 좀더 활동적인 남선교회를 위한 2012년의 새로운 회장단 (회장: 이창호, 부회장: 엄재관, 서기: 안성완, 회계: 김우진)을 선임하였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신입 회장단이 큰 발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로 힘을 실어 주는 201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년 동안 남선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속에서 동참하신 이영길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이 애쓰신 임원 여러분들,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문 여러분과 남선교회의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한 자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사회

최명열 집사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달 12월이면 다음 회장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열립니다.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9월에는 상록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점심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음식 준비에 허경희/배성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열 네분의 상록회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하였는데,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지난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리운 어머니.

* 10월15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봄 대청소때에는 덤스터를 빌려 교회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로 꽉 채워 버렸는데, 이번 가을에는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바다 청소까지 해주셨고, 많은 집사님들과 청년들께서 나오셔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선영 장로님께서 흥합국을 맛있게 끓여 대접해 주셨습니다.

* 10월 22일에는 건축기금 모금 골프 대회가 Ac-
ton에 있는 Quail Ridge GC에서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코스라서 걱정을 했는데 총 20명의 골퍼들이 모여 김동숙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게임을 하였고, 집사회에서 제공하는 트로피와 상

품 그리고 저녁 부페까지 다들 즐겼습니다. 총 수익 2,835불을 교회 재정 위원회에 드렸습니다.

* 10월 29일에는 집사회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모였습니다. 날씨(폭설)탓인지 몇 명이 모이지 못했지만 찬양과 기도의 밤은 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모임입니다. 준비해 주신 최현구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ECC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11월에는 27일에 집사회 주최 건강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이 해영 교수님이 심장, 고혈압에 관해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도 있습니다.

* 12월 행사로는 10일 저녁 6시 반에 집사회 총회가 있고, 적당한 때에 스키, 스노우보드를 타러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보스톤 한인교회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에스터 여선교회

이성숙 집사

부족한 제가 여선교회 회장직을 맡아 동분서주하며 일을 하다보니 어느덧 1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를 특별히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에 다시한번 놀라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임원 여러분들과 많은 여성도님들께서 크고 작은 여러 행사때마다 몸을 아끼지않고 도와 주셔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여러 여성도님과 여선교회 임원진들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사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9월: 니과라과 단기 선교팀 (약품 포장사) 점심준비

제작임직식- 꽃준비와 전 교인 오찬준비

구역원이 적어서 준비하시기 힘든 구역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주심을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10월: Oasis Cafe “이민자를 위한 한국 가요의 밤” Dumpling 준비

3. 11월: 추수감사주일/창립58주년 기념예배 특별다과준비

4. 12월 11일: 에스터 여선교회 정기총회 예정, 시간: 2부 예배후 (1:30) 장소: Room# 1

45세 이하의 여성도님들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하셔서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애쓰는 보스톤한인교회 에스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고등부

양동준 집사



“저의 중고등부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매년 교사가 필요해서 모집을 했지만,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죄송하면서도 부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수있나” 라고 많은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면에서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헌신하시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황동준 집사나 정한진 전도사님께 말씀드려 중고등부 예배를 참관하고 나서 결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학생들은 여러분의 나눔을 기다립니다.”

제가 위의 말씀을 쓴지 석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 분의 새로운 교사들과 한명의 전직 교사를 주셨습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채워주시고, 힘들면 걱정해주시고, 절망할 때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저의 중고등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알고,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로 아니면 보조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예배에 환영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이벤트들을 알려드립니다.

* 9월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open house를 했습니다. Sunflower Sunday School에서 처음 올라온 6학년들을 위해 찬양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재미있는 게임 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6학년 학생들의 참석율이 낮았지만,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준비로 다음 학년 학생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월에는 12명의 학생들과 전도사님이 불링을 참가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었지만 좋은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 이번 11월에는 매년 Gordon Conwell 학교에서 주최하는 Arise 찬양의 밤이 금요일 밤에 있었고, 토요일 아침에는 flag football 대회에 두팀이 참가하였습니다. A팀은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우승 후보까지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플레이오프에서 지는 바람에 탈락되고, B팀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열심히 겨루어 알찬 1승을 거두었습니다. 총 16명의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참여한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PTA에서 아침 식사와 snack을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점심과 집을 제공해주신 김미미/David Choi 집사님 가정에게도 감사합니다.

다음 3개월 계획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번 12월 activity는 coffee house/ talent show 가 17일(토) 저녁 7부터 ECC Chapel 에서 시작됩니다. Part1 은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Part2 는 아이들의 탈란트를 showcase 하는 시간으로 나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내년 1월 17일에 lock-in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unflower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신 Tim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학생들이 밤을 새우며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그리고 이번 2월에는 청년 1부와 함께 중고등부실에서 합동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멘토쉽을 가짐으로써, 교회에서 많은 조언들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나눔이되리라 생각합니다. 합동 찬양과 기도의 밤도 계획중입니다.



Sunflower 주일학교

박진호 전도사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2011년 한해 동안에 우리 교회와 Sunflower 사역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8주 동안에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쉬지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등을 전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는 어린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님 각 각 한분씩과 보조 선생님 두분을 찾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은주 부장집사님 또는 Timothy Park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Sunday school prayer

by Jason Kim (5th Grade)

*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에 배에는 우리 Sunflower 어린이들이 성탄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성탄이브 축하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감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 새로운 찬양팀 멤버들을(기타리스트: 강경진 형제, 싱어: 심세희 자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10월 2일 예배후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PTA 모임을 가졌습니다. 2년여동안 PTA회장으로 섬기신 이성숙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차기 회장으로 는 이성희 집사님께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 10월 6일 이성숙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학교 분기모임을 가졌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또한, 주일학교에서 함께 섬기실 유아부, 5학년 선

Dear God,
You are the king of kings
and we are here to worship you
for all of the blessings you have given us.
Please forgive the sins that we committed.
We pray that you help us be more like you.
Help us to care and forgive others even
when they are mean to us.
We pray that those who couldn't come today can come
next week to learn more about God. Thank you for those
who are here today to listen to Pastor Tim's message.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a long break with our family
and have an amazing Thanksgiving. Guide us to live
within your lesson.
We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쉐마의 밤

지난 11월 26일(토) 추수감사절 주간 토요일에 쉐마의 밤이 열렸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기념하며, 장로님들택에서 구워오신 칠면조와 side dish로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었고, 참가한 많은 교우님들이 한가족이 되어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쉐마의 밤 행사는 쉐마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현구, 황동준, 정은아 집사님과 신민영교우 외에도 부부청년부의 정재원/신보경 집사님과 멀리계시던 정일진 집사님이 Join한 쉐마 찬양팀이 다채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쉐마의 밤 기도의 시간을 통해 늘 기도드렸

던 환자분 중 한분이신 신영각 집사님을 비디오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절을 맞아 많은 회복을 하고 계신 신집사님께서 여러 교우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감사의 계절을 보내며, 한승희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새들을 아름답게 찍으신 사진들을 슬라이드쇼를 통해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찬양으로는 남선교회의 우렁찬 목소리의 찬양이 이어졌고,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한해동안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을 갖자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참석한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송을 함께 부르고 11월의 쉐마의 밤을 마쳤습니다

수필

안은신 집사

클로버

오늘도 어김없이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정원에 나가 클로버에 핀 꽃을 따러 나갔어요. 클로버들이 잔디와 섞여있어서 주로 위에서 잡아당기기만 했는데, 오늘은 뿌리까지 뽑으려고 맘을 먹었죠. 그래서 클로버 하나를 잡고 뿌리있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다른 화초들과는 달리, 밑에 있는 뿌리가 위로 줄기와 잎을 자라게 하는게 아니라, 똑 따면 끊어지는 클로버의 더 굵은 줄기가 잔디 뿌리 밑으로 계속 연결되어 한 뿌리로 향하더라고요. 마치 땅밑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처럼...약하게만 봤던 클로버들이 왜 생존력이 강한지 알았어요. 잔디 뿌리 밑에 있어서 클로버 뿌리도 잘 뽑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클로버는 잔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굵은 줄기로 하나되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푹 하고 부러지는 클로버 같지만, 밟아도 죽지않고 위에서 뽑아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토끼가 와서 먹고, 사람이 따더라도 굵은 줄기에서 다시 싹을 틔웁니다.

관련이 있는진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부 청년부 식구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서로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가정이 함께 주님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다시 사는 클로버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굵은 믿음을 계속 옆으로 자라게 해서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요.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적이 있어요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우리는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세잎 클로버를 짓밟고 있어요.

그런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행복” 이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복’ 이란 꽃말을 가진 세잎 클로버는 굵은 줄기와 뿌리로 더 많은 ‘행복’ 을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 조금 짓밟힌다고 해서 꺾이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클로버 처럼 주님안에서 굵은 줄기와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할 것 같아요. 저부터 실천해야겠죠. ^^

요즘 은하와 자주 부르는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 정말 요즘 아이들 찬양에서 많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내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맺고

하나님 말씀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 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내일 피크닉 가서서 클로버 보시면 줄기를 따라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의 시간을 빼앗았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은혜가 되었길 바래요. 바쁜 생활중에 작은 것에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봄)

대강절의 의미

대강절(Advent)은 ‘옴’, ‘도착’ 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 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며, 한때 이말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기도 했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네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대강절의 또다른 명칭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의 대림절(待臨節), 강림절(降臨節) 등이 있다.

중대한 사건이나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에 대강절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서막인 주의 탄생 기념일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탄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를 기다리는 바른 태도와 내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겸손한 구주로 오신 주의 탄생을 감사하며 고대하는 대강절은 밝은 분위기를 가진다.

광고

1. 11월 27일 주일부터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 상록기도회 내년도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주정대 집사, 부회장: 장현숙 권사,
총무: 이숙재 권사
3. 부부청년부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이재익/김명은, 부회장: 전재완/유진선,
총무: 배광현/정유미
4. 청년 2부: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문지용, 부회장: 이수영,
총무: 신일경

행사예고

1. 12월 10일(토): 제직회
2. 12월 24일(토): Christmas Eve 촛불/음악예배
3. 12월 25일(일): 성탄주일 예배, 성례전
4. 12월 31일(토): 송구영신 예배

교우동정

소천:

전아사 교우님 부친께서 소천 (9월 말)
최형태 교우님 모친께서 소천 (11월 초)

출산:

차민호/신민영 집사댁 득남(예준)/10월 초
오형석/박해인 교우댁 득남(유태)/11월 초
오준석/황정제 교우댁 득녀(예나)/11월 초
장영준/박지혜 교우댁 득남(준, Timothy)
12월 초

이주:

정민석/토모코 집사댁 시애틀로 이주(10월 말)
류덕현/김양희 집사댁 산호세로 이주(11월 중)
김우준/김희정 집사댁 한국으로 귀국(11월 말)

사순절 묵상집

매년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손수 쓰신 글과 기도문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 사순절 묵상집을 마련하여 온 교우님들과 함께 읽으며 은혜의 사순절을 맞고자 합니다.

새의 수요일(2012년 2월 22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와 용서, 절제와 금식,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교우님이 보내주시는 묵상의 글은 이 사순절 기간에 귀한 은혜를 온 교우가 함께 나누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식은 기도문, 묵상을 위한 에세이, 기도시 등이며, 분량은 1/2 ~ 1 페이지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더불어 해당되는 성경귀절과 한줄 기도로 맺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배한원 집사(781-275-7675)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E-mail: hanwbae@yahoo.com 혹은 교회 사무실

마감 날짜: 2012년 1월 15일

보스톤 한인교회 예배위원회 & 홍보위원회 드림

새교우 환영반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에 오신 새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거의 매달 새교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영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3번의 교육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 교육내용은 첫째 주는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 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장로교회 교단에 대해 배웁니다.

9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김차숙, 남궁원, 배건국/최한나, 한국/손효정, 심수중/정혜원

10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이성옥/이효진, 박상철/이혜원, 김제성/채은혜, 황현숙, 박용진 가정입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저녁 만찬을 갖는데, 지난 9월 새교우 환영반은 김문소/김계숙 장로님 댁에서, 10월 새교우 환영반은 이선영/신광성 장로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장로님 가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원 교우는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여러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며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북서2구역에 소속되어 있고 어머님 김차숙 교우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건국/최한나 교우(부청)는 아버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뜻으로 이름을 건국이라고 지어 주셨다고 하며 현재 하바드대학에서 조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손효정 교우(부청)는 하바드 메디컬에서 병원성 박테리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수중/정혜원 교우(중양4)는 경희대 의대 부교수이며 협심증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으며 현재 하바드 대학에서 1년 정도 연구기간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옥/이효진 교우(부청)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해 오셨으며 이성옥 교우는 Brigham Women's Hospital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힘든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상철/이혜원 교우(부청)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박상철 교우는 현재 Tufts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혜원 교우는 의료정책 관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제성/채은혜 교우(중서2)는 웨스트브로에서 8년 살면서 보스톤 장로교(합킨톤)에 출석했는데 뉴턴으로 이사오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부모의 신앙 밑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황현숙 교우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 퇴임하고 현재 Brookline High School의 11학년 재학 중인 아들 교육을 위해 보스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신앙체험을 갖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남편은 서울교대 수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교우는 박사후 연구과정으로 하바드에서 세포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남편은 메릴랜드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새교우 환영반은 4일, 11일,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환영반 교육을 통해 교회를 알고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교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에 관한 문의는 교인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님과 김현주 집사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



• 니카라과 단기 선교 약품포장



• 청년2부 Psalm Night



• 마리아 여선교회 연합부흥회 만찬 준비



• Sunflower 주일학교



• 신임 장로/ 안수 집사 임직식



• 부부 청년부 헌신 예배 찬양

